

혼조조카마치 해설판 7 혼조조카의 총진수 「하치만 신사」

혼조 하치만 신사는 게이초 12년(1607년) 혼조 미쓰시게(本城満茂)가 조카마치를 건설함에 따라 아코우즈오노하라(현 유리혼조시 마쓰가사키)에서 혼조성의 귀문(북동쪽)에 해당하는 현재지로 천궁한 것입니다. 겐나 9년(1623년)에 입부한 로쿠고 씨도 그 고장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어 혼조의 총진수로 숭경받아 왔습니다. 번주들이 봉납한 오에마(大絵馬, 대형 말그림)에서도 하치만 신사가 숭경사로서 소중히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매년 9월에 열리는 축제는 구 조카지역의 아시가루마치와 조닌마치의 많은 우지코초나이(氏子町内)가 참가하며 수레(山車)와 다이묘 행렬 등이 순회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입니다.

에도시대에 신사 앞 동서로 가르는 거리는 「하치만마치」라고 불렸습니다. 조카 평면도에 따르면 경내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참배길과 2 기의 도리이(鳥居), 참배길 양옆에는 당사가 배치되는 등 현재와 같은 경관이 그려져 있습니다. 또 경내에는 벳토지(別当寺, 신사를 관리하는 절)로 보이는 「하치만사(八幡寺)」와 「고마도(護摩堂)」 등의 당사도 그려져 있어 신불습합(神仏習合) 시대 신사의 본연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.

경내사의 구스시(句須志) 신사 앞에는 16세기에 홋코쿠선(北国船)으로 에치젠노쿠니(越前国) (후쿠이현) 에서 운구되어 온 샤쿠다니이시(笏谷石)로 만든 고마이ぬ(猫犬) (시지정유형문화재)가 진좌되어 있습니다. 또한 경내 입구에는 메이지 27년(1894년) 8월 25일에 발생한 대홍수로 3m 남짓한 침수피해를 전하는 석제 표주가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 전승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.